

현대車, 대규모 미디어아트로 한·중·러 잇는다

'미래 인류-우리가 공유하는 행성' 주제
베이징 시작으로 3개국에서 전시 열려

현대자동차가 한국·중국·러시아를 잇는 대규모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연다.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인류와 모빌리티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대차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기관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와의 협업을 통해 '미래 인류-우리가 공유하는 행성(Future Humanity-Our Shared Planet)'을 주제로 한 예술 전시를 11월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서울·모스크바에서 개막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날 현대 모터스튜디오 베이징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비롯 코넬리아 슈나이더 현대차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담당 상무, 마틴 훈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패스티벌 디렉터, 치우즈지에 중국 중앙미술학원 교수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차는 베이징을 시작으로 9일 서울, 24일 모스크바에서 차례로 동일한 주제의 전시



현대차가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베이징, 모스크바에서 여는 대규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인 '미래 인류-우리가 공유하는 행성' 전 베이징 개막식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왼쪽)이 이번 전시 참가 작가 오지페이(Ou Jifei)로부터 전시작 '실리아(Cilia)'에 대한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를 시작해 내년 2월 28일까지 전세계 19명 작가들의 작품 약 25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는 양아치, 룸톤, 이장원 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9

일 진행될 개막식에서는 마틴 훈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패스티벌 디렉터가 참여해 작가들과 함께 이번 전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구자열 LS그룹 회장, 中서 신사업 기회 모색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직접 참관



전, LS엠트론 등 3개 회사가 첨단장비관에 약 90m² (10부스) 규모로 'Smart LS, Smart Technology'라는 주제의 전시관을 마련했다. LS전선은 HVDC 케이

블, 해저 케이블, 무선전력 기술을 공개했으

며 LS산전은 마이크로그리드, ESS, 산업자동화 시스템을 선보였다. 또 LS엠트론의 현지맞춤 트랙터 기술 등을 전시했다.

구 회장은 스마트 첨단장비관 내 LS 전시부스를 방문해 임직원 등을 만나 격려한 후 현지 법인장들로부터 중국 사업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이후 전자 및 가전관, 자동차관, 의료/헬스케어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전시에 참가한 글로벌 기업들의 최신 기술 트랜드를 직접 경험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오늘의 운세 11월 9일 (음 10월 2일)



48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6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이 도달하니 행운의 날. 72년생 밤이 지나야만 새벽이 온다. 84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본다고 지워지지 않으니 세탁이 필요.



49년생 나이 듣다는 것은 늙는 게 아니라 성숙 되는 것. 61년생 모심으려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73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85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건 먼저 추억이 사라지는 것.



50년생 맡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 62년생 두드리면 열릴 문이니 최선을 다해서 두드려라. 74년생 헛된 욕심이 큰 화를 부르니 조심. 86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는 것이 좋은 일로 다가온다.



51년생 뿌린 만큼, 다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63년생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의 사다리에 오를 수 없다. 75년생 계으로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87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52년생 지는 일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서글프다. 64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 76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퀘어야 보아이다. 88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반드시 더러워지기 마련.



53년생 내용보다 포장이 중요할 때가 있다. 65년생 어름이 가면 부채는 제 소명을 다한 것이다. 77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다. 89년생 깊은 밤은 친란한 새벽을 위한 준비과정.



54년생 어제 본 그 사람이 내게 귀인. 66년생 결혼은 둘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아차피 혼자서 가는 여행. 78년생 올바른 자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90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뚫리는 법이니 부단한 노력이 중요.



5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7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79년생 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다. 91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56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롭다. 68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안주한다. 80년생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하지 마라. 92년생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내 손안에 있다.



57년생 병이 있으나 악도 주어지니 실망은 금물. 69년생 베릴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이다. 81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93년생 기쁨과 균형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58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니 겸손하라. 70년생 오랜 적선이 내게로 돌아오니 행복한 날. 82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94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으니 쉬지 말고 노력.



59년생 조언도 사람을 봐가며 따라야 한다. 71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 분별해야 한다. 83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95년생 소통과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7		4		3			
2	3					8	1	
		4		7				
3							2	
	9		3	2		6		
2						3		1
	3		9	5				
1	6		5	8	4	7	2	7

	7			1	4			
5	1		9	3				
4	3	7	2					
7		4				8		
	8		6	5	3	2	5	7
4	6	1	3			5		
		8	7	6	2	4	1	
2	6	5	1	4	3	9	7	6
8			2	3	9	2	7	

스도쿠 정답								
1	6	9	5	3	8	2	4	7
7	4	3	2	9	6	5	1	8
5	2	8	7	1	4	6	3	9
8	9	1	3	5	2	7	6	4
3	7	4	1	6	9	8	5	2
6	5	2	4	8	7	5	4	1
2	3	6	9	7	5	4	8	1
9	8	7	6	4	1	3	2	5
4	1	5	8	2	3	9	7	6

문제 제공=보뉴스

먹고 살기 힘들어 보험 깐다



기자 수첩

김희주
(파이낸스&마켓부)

존에 납부한 원금 손실이 불가피
함에도 말이다.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약관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70~80%의 범위에서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대출 절차가 간편하고 이자도 낮아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거래된다.

올 상반기 약관대출 잔액은 47조 58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증가 폭 또한 2017년 3.6%, 2016년 2.3%, 2015년 0.7% 등 매년 커지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일은 잦아진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들이 대출이 힘들어지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보험을 깨면서까지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만들었으니 말이다. 정부는 현실감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hj89@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삶의 염불삼매(念佛三昧)



김상회의四季

삶의 염불삼매(念佛三昧)

한국불자들에게 익숙한 관음기도에 있어 빠지지 않는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진언(觀世音菩薩 本心微妙 六字大名 王眞言)도 '옴'으로 시작되는데 '옴 마니 반메 흄'이 그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옥 축생 아귀 등 육도윤회를 하는 모든 존재들이 미망의 세계를 벗어나 불보살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대신통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불교의 전통에서는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계속해서 지성으로 염송하면 삼매에까지 이르는 선정수행의 효과까지 성취한다 하여 염불선(念佛禪)이라고까지 이름붙인 것이다. 일종의 진언(眞言)기도와 다름이 없다.

필자가 몹시도 존경하던 활불(活佛)로 칭해지시던 청화 큰스님은 생활 속의 염불선의 효험과 가피를 강조하시곤 하였다. 큰스님이 입적하신지 어언 15년쯤이 지났지만 지금도 큰스님 밑에서 수행지도를 받던 재가자들이 아미타(阿彌陀) 염불을 위주로 꾸준히 수행정진을 하고 있으며 이런 저런 신통한 경험을 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염불선의 목적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기